

첫 인사 때

- 상대방이 명함을 챙기지 못해 안절부절할 때 “나도 유명할 때는 명함이 없었습니다. 원래 넘버원은 명함이 없잖아요. 오늘 대단한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. 마치 잘나갈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어깨가 으쓱합니다.

”- 내가 명함이 없을 때, “명함이 다 떨어졌는데 더 확실한 것을 드릴까요.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말입니다.

- ” 뵙고 나니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군요. 혹시 제가 돈이라도 빌려 준 적이 있었나요?“

-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고 늙지 않고 그냥 그대로라는 말을 대신할 유머를 구사해보자.

- ”넌 나이를 거꾸로먹냐? 이러다 분유 사 달라고 조르는 거 아냐!“

-